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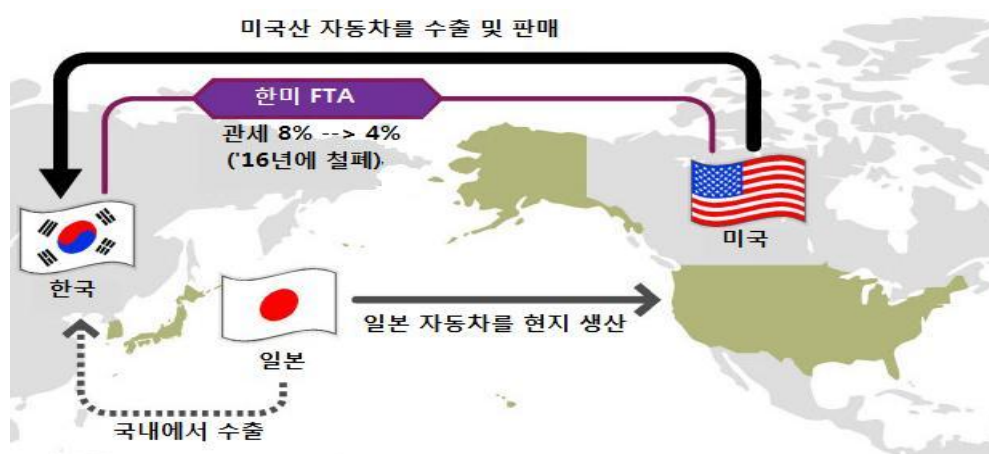
한미FTA를 활용한 일본의 자동차 판매 전략

-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일본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한국으로 수출하기 시작
- 한미 간의 무역조건이 개선됨으로서 일본과 유럽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가 한국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

□ 미국에서 생산하여 한국으로 수출

- 한미FTA를 활용하여 미국에 진출한 일본자동차기업들이 한국시장으로 수출을 증가시키고 있음
 - 혼다, 도요타 등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한국에 적극적으로 수출
 - 한국과 FTA를 체결한 EU국가의 자동차기업들도 같은 상황이며 특히, 독일의 폭스바겐이 미국을 통해 한국으로 수출을 확대

일본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 경로



자료: 일본경제신문

- 한미FTA 발효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승용차의 관세가 8%에서 4%로 축소되어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이익이라는 계산
- 과거에는 지리적 접근성을 이용하여 일본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한국으로 수출
- ‘16년 미국산 승용차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미국을 통한 수출이 더 확대될 전망

□ 한국시장에서 미국산 일본 자동차 증가

- 고바야시 아태지역본부장은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“미국산 혼다를 한국에 전량 투입해 한국판매를 10배로 늘리겠다고” 말함
- 과거에는 일본에서 생산된 차종을 한국으로 수출하였지만 연내 출시되는 신형 ‘어코드’를 중심으로 4개 차종을 미국에서 수출할 계획
- 한·EU FTA도 활용하여 영국 공장에 생산되는 유럽 모델 ‘시빅’을 한국으로 수출
- 도요타는 ‘12년 1월부터 미국 켄터키주에서 생산한 신형 ‘캠리’를 한국시장에서 판매
- ‘12년 1~10월의 한국 판매 대수는 4,640대로 수입차 판매순위에서 3위를 기록
- 닛산은 ‘12년 가을부터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형 ‘알티마’도 미국산이며, 한국닛산의 나이토 켄지 사장은 “이제 한국시장에서

수요가 있는 자동차를 유리한 조건으로 세계 각국 공장에서 가져올 수 있다” 고 언급

- 독일의 폭스바겐은 한미FTA와 한EU FTA를 이용하여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신형 ‘파사트’의 디젤차와 휘발유차를 잇달라 한국으로 수출
- 한국시장에서 일본과 유럽기업의 미국산 자동차 판매는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를 견제하려는 의도

□ 시사점

- 일본에서 생산된 자동차보다 미국산 자동차가 가격경쟁력이 있고, 엔고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은 미국산 자동차를 한국에 집중적으로 수출할 것으로 예상
 - 한미FTA 발효 이후 한국에서의 수입차점유율은 약 10%를 차지하고 있지만,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
 - * 한국의 수입차점유율(%) : 6.86(‘11.12월)→ 7.15(‘12.2월)→ 9.90(‘12.4월)→ 9.62(‘12.7월)→ 10.52(‘12.10월)
 - 일본도 자동차 관련 세금을 인하할 예정으로 일본시장에서 외국차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로 향후 자동차수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
 - * 일본의 수입차점유율(%) : 11.8(‘11.12월)→ 7.4(‘12.2월)→ 7.3(‘12.4월)→ 7.6(‘12.7월)→ 10.5(‘12.10월)
- 한미FTA 체결로 자동차부품인 베어링의 관세 9%가 미국에서 철폐되어 한국기업의 부품수출이 일본기업보다 유리할 것으로 전망

-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기업들이 한미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에 진출하여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움직임도 포착
-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부품수입 의존을 줄여 나가는 한편, 국내기업들과 자동차부품 서플라이체인을 형성하는 전략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

<참고자료>

일본경제신문(2012.11.27)